

해인 2011 AUTUMN Vol.272

2011 AUTUMN Vol.272
HAEIN Membership Magazine

해인

해인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사업과 함께
철스크랩을 통한 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 프렌들리 산업의 주역, 그린비즈니스도 역시 헤인입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대한민국.

기후변화와 자원·에너지 고갈은 우리 코앞에 닥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헤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다시 쓰자!”

대한민국 산업화를 향해 달려온 헤인이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를 위해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헤인은 주저하지 않고 실천합니다.

흔히 고철이라 부르는 철스크랩을 통해

친환경 재활용 산업에 뛰어든 것이죠.

헤인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사업과 함께 철스크랩을 통한 자원개발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푸른 미래.

헤인의 열정적인 실천이 그 푸른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Contents

헤인인 2011 AUTUMN Vol.272



02 ' Cover Story

Special Theme

04 ' 시대공감

Low Carbon, Green Growth '에코 프렌들리 경영'을 실행하라

06 ' 헤인공감

친환경 철강원료로 그린비즈니스 개척하는 (주)헤인

08 ' Love & Faith I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

10 ' 헤인인 요슬램프

IT팀 김종엽 과장 가족의 피자, 치즈 만들기 체험

14 ' 함께 걷는 길

Green 기업으로 성공신화 일궈내다. HIG&T

18 ' Love & Faith II

KBS비즈니스 대구사업소

20 ' 따라해보세요

건조한 가을, 철저한 장비 점검이 필요할 때!

22 ' 방방곡곡 맛집로드

동해 바다의 향을 짝짝 채워 담은 동해지점의 오징어순대 & 아바이순대

24 ' 리빙센스

인테리어의 꽃, '조명'

26 ' Best Item

캐터필라 순정 부동액 ELC & 부품운영서비스시스템 PMAO

28 ' 자녀탐구생활

우리 아이 식습관 평생 건강 좌우한다

30 ' 헤인인 Wake Up!

TV 속 스타 따라잡기 '내가 제일 잘나가'

34 ' News

89톤급 초대형 캐터필라 휠로더 992C CCR 계약 체결 외

38 ' Reader's Letter

39 ' 내 생애 최고의 순간

Low Carbon, Green Growth

‘에코 프렌들리 경영’을 실행하라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나타내는 환경위기사계. 우리나라의 환경위기사계는 2011년 현재 9시59분을 나타내고 있다.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하니 실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은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수명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에코 프렌들리(Eco Friendly)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 프렌들리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녹색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아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왜 친환경 녹색성장의 길을 선택했는가. 또 자원재활용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

☞ 이성숙

폐기물? No! 소중한 자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토해내며 환경위기사계의 시침을 빨리 움직이게 하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고갈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이제 전 세계 비즈니스에는 ‘녹색성장, 친환경, 저탄소’와 같은 키워드가 붓물처럼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활용산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높은 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9월 27일 환경부는 고철·폐지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를 모두를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했으나, 철강업체 등의 강력한 반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고철·폐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수정했다. 이

로써 고철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강·주물 등 철강업체들이 ‘폐기물처리업체’가 될 위기를 겪어 모면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고철이라고 부르는 철 스크랩

은 폐기물이 아니라 제조산업을 움직

이는 주요 원자재다. 세계 어느 나라

도 고철과 폐지를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고철은 이

미 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주원료인

철 스크랩은 부전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폐

기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유리 등 약 5만 1000t의 자원을 뽑아냈다. L전자 역시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수명 전체를 책임지는 ‘그린경영’이라는 기조 아래 폐제품 수거·재활

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재활용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생가스를 이용해 자기발전의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굴지의 제철소들은 사용한 전력

량 중 70%는 조업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 기

반의 자기발전과 자체 에너지 회수설비, LNG 복합

발전 설비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역시, 용수 재처리로 폐자원을 재활용

하고 있다. 공정 과정에서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버릴 게 없는 산업계, ‘재활용’ 움직임

국내 재활용 산업에 부정적인 공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재활용을 기업경영에 이용해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위한 Problem Solver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바로 자원재활용이다. 자원재활용 산업은 환경 문제의 해결과 미래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 키워드가 산업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의 활발한 ‘재활용’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자, 철강, 자동차, 정유업계 등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굴뚝산업에서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과 원가절감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전업체들이 폐제품 재활용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S전자의 연간 전자제품 재활용량은 올해 처음으로 6만

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S전자는 냉장고와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5만 7,000t가량을 거둬들여 재활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철과 합성수지, 비철, 유리 등 약 5만 1000t의 자원을 뽑아냈다. L전자 역시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수명 전체를 책임지는 ‘그린경영’이라는 기조 아래 폐제품 수거·재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재활용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생가스를 이용해 자기발전의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 굴지의 제철소들은 사용한 전력량 중 70%는 조업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 기반의 자기발전과 자체 에너지 회수설비, LNG 복합발전 설비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역시, 용수 재처리로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있다. 공정 과정에서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철강업체와 달리 자동차업체는 폐자원이 많지 않다. 자동차를 만들기에 딱 맞는 분량의 철강 강판을 가져오면 그 분량에 맞게 자동차 완성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여, 자동차업체는 산업용수 재처리를 통해 폐자원 재활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유업계는 ‘고도화 설비’를 통한 재활용 움직임이 활발하다. 고도화 설비는 저급 원료를 정제할 때 불가피하게 대량 생산되는 저급 벙커 C유를 기반으로 휘발유, 경유 등 고부가가치 경질유를 생산하는 설비다. 값싼 벙커C유를 고부가가치 휘발유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업계도 재활용에 점차 눈을 뜨고 있다. 폐타이어를 통해 고형연료를 추출하고 있는가 하면, 폐기된 페트병을 원료로 PC모니터와 휴대폰 내장

재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한 국내 굴지의 화학업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PCM수지 1톤에는 폐기된 페트병 1만 3400여 개가 쓰인다.

재활용은 놀라운 에코이즘

녹색산업은 재활용 산업을 선진화해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 각축전과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해 있다. 특히 화석 원료의 고갈은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어 재활용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재활용산업 이미지 제고 및 국제 경쟁력 확보, 자원의 순환구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 쓸모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에는 버릴 것보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



혜인
공감

소외된 것에서 미래를 찾다

세계는 지금 그린비즈니스에 열광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가 쫓는 그린비즈니스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있다. 그러나 소외된 환경 속에 이미 오래 전부터 묵묵히 그린비즈니스를 실천해 온 산업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철스크랩(고철)’ 산업이다.

철스크랩은 3대 기초원료(철광석, 원료탄, 고철) 중 하나로 철강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자재다. ‘산업의 기초자원’인 철스크랩은 주물·제강·제지업체에서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철강의 ‘핵심원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스크랩 공급이 부족해서 연 3천만 톤의 수요 중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달청에서 철 스크랩을 비축·방출하는 등 주요 원자재로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철스크랩 시장은 원자재의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로 보는 시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번 태어난 철은 40번 이상 재탄생하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철은 철스크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철스크랩은 대표적인 친환경자원으로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 철스크랩을 이용해 철을 만들면 철광석을 이용할 때 드는 에너

Green Business, Green HAEIN

친환경 철강원료로 그린비즈니스를 개척하는 (주)혜인

반세기 건설기계 및 에너지동력산업의 명가 (주)혜인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신수종 사업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사업과 함께 자원개발사업인 ‘철스크랩’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무한순환이 가능한 철스크랩 산업은 쓰는 만큼 돌아오는 가장 정직한 친환경 녹색 자원이다. (주)혜인은 지난해 필리핀에 설립한 철스크랩 전문기업 HIG&T를 필두로 국내외에 철스크랩을 친환경 자원이자 철강 산업의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원자재임을 알리고 있다.

필/ 이성숙

철스크랩은 3대 기초원료

(철광석, 원료탄, 고철) 중 하나로

철강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자재다. ‘산업의

기초자원’인 철스크랩은

주물·제강업계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철강의

‘핵심원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스크랩 공급이 부족해서

연 3천만 톤의 수요 중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의 3분의 1만으로 충분하고, 특히 톤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5~6배 적어 탄소제로 시대에 적합한 원자재다.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산업은 화려한 완성제품 및 IT산업에 가려 소외되고 있다. 첨단산업도, 새로이 출현한 신산업도 아니지만 친환경산업 최전방에서 국내 철강 산업을 지키는 철스크랩의 화려한 부활을 위해 (주)혜인이 발 벗고 나섰다.

(주)혜인은 자원재활용,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자원재활용의 대명사인 ‘철스크랩’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혜인의 새로운 도전에 첨병이 될 필리핀 독립법인 HIG&T(HAEIN Global & Trading Philippines Corporation, 이하 HIG&T)는 고철을 수집해 국내외 제강사에 납품하며 철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이어주고 있다.

혜인, 그린비즈니스의 물꼬를 트다

1960년 10월 17일 창립이라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건설기계 및 엔진/발전기, 산업장비 등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 의 산업화에 이바지해 온 (주)혜인은 최근 들어 점차 대두되고 있는 국가적인 그린에너지 자원 확보 및 사업다각화를 통해 100년 기업을 향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스크랩사업, 광물자원개발사업 등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며 ‘미래지향적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풍력과 함께 양대 축을 책임지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혜인은 지난 2007년 11월 전라남도 해남에 (주)혜인에너지를 설립하였다. 1MWp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여 차별화된 기술노하우와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춘 (주)혜인에너지는 모기업인 (주)혜인 천안공장 건물 옥상에 100kW급 규모의 제2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이 발주하는 태양광주택 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비롯한 각종 보급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혜인에너지는 향후

태양광사업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지열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시켜 신재생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주)혜인은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개발사업’이라는 신수종사업에도 진출하였다. 2010년 6월에 철스크랩 사업 진출을 위해 필리핀에 해외독립법인 ‘HIG&T’를 설립한 것이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몰리브덴 광산과 채광된 광물을 가공하는 선광공장을 보유한 KMO(주)를 지분인수의 방식으로 계열사에 편입시키고 10월에 (주)혜인자원’으로 회사명을 바꾸며 희소광물자원 개발이라는 고부가가치의 신사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다.

‘HIG&T’는 필리핀 현지에서 스크랩을 사들여 필리핀 현지 판매 및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의 수출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미 놀라운 사업 기회를 창출시켜 설립 1년 만에 대한제강에 3,600톤 규모의 철스크랩을 성공적으로 납품하고 필리핀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제강사인 스틸아시아(STEEL ASIA)사의 직납권을 획득한 바 있다. 많은 세계적 기업이 녹색시장을 파고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른바 탄소제로 시대를 만드는 ‘탄소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주)혜인 역시 탄소제로 시대에 시간이 흐를수록 고갈될 수밖에 없는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과 재해석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원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은 이러한 신규 성장동력원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녹색성장의 기회를 잡고, 초우량 100년 기업 혜인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놓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 물류와 장비의 고수가 만났다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물류센터 내에서 직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융하인리히 전동 파렛트트럭과 전동 하이리치 트럭이 그것이다.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를 찾아가 융하인리히 장비로 맺어진 홈플러스 물류센터와 (주)헤인의 상생의 파트너십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필 김희정 사원 이재범

1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을 누비고 있는 융하인리히 전동 파렛트트럭.
2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 배본직 센터장(오른쪽)과 (주)헤인 산업장비사업본부 이진호 차장(왼쪽).
3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 남윤각 대리(오른쪽)가 정기 점검을 나온 (주)헤인 직원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4 융하인리히 전동 하이리치트럭에 탑승한 물류센터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에 임하고 있다.

홈플러스, 융하인리히와의 첫 만남

국내 유통물류센터의 표본으로 불리는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 건물면적 1만 6천 평으로 건물의 길이가 329m, 너비도 150m에 이른다. 축구장 7개 반을 합친 것과 같은 이곳에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점포에 배분할 수만 가지 제품이 보관, 공급되고 있다. 이곳이 물류센터의 '표본'으로 불리는 건 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협력업체의 대부분이 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 효율적인 물류관리 시스템, 친환경 경영기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등 종합적인 면에서 그 우수성은 단연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간 1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는 것이 배본직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장의 설명이다.

“지금이야 목천물류센터의 운영이 최고 수준이지만, 홈플러스가 물류센터를 처음 오픈했었던 199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다. 특히 1999년에 제가 홈플러스 덕평물류센터 오픈 업무를 맡았는데, 그 당시 새로 개척해야 할 복잡한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난감했던 문제가 바로 장비였는데요, 당장 어떤 사양의 장비를 사야 하는지 막막했죠. 그때 벤치마킹을 위해 영국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눈에 띄는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융하인리히였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 융하인리히에 대해 알아보다 헤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들어와 융하인리히 장비를 찾았지만 바로 구매해 사용할 수는 없었다. 국내 물류센터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장비 사양을 정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을 거쳐야 했던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입찰 과정이 까다로웠죠. 국내외 브랜드들을 모아놓고 가격은 물론이고 성능과 기능, 서비스, 유지·보수 관리 등을 모두 점검한 후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융하인리히 장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덕평물류센터 오픈 때의 인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홈플러스 전국매장에 헤인의 장비가 납품되었고, 2003년과 2005년에 오픈한 목천, 함안물류센터에도 대량의 융하인리히 물류장비가 납품되었다. 현재 홈플러스에는 융하인리히 전동 파렛트트럭과 전동 하이리치트럭 등 총 300여 대 장비가 직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장을 누비고 있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가는 깊은 인연

끝이 보이지 않는 물류센터 내부. 직원들이 융하인리히 전동 파렛트트럭과 하이리치트럭에 몸을 싣고 자유자재로 물류센터 내부를 이동한다. 무거운 짐을 척척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곳에 쌓아 올리는 것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바쁜 움직임이지만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직원들의 일사불란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기계와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 안전관리가 필수죠. 작은 안전사고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융하인리히 장비도 그러한 측면에서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배려한 여러 가지 기능은 융하인리히 장비가 가장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장비 전문가’로 불리는 남윤각 대리도 안전과 성능 측면에서의 융하인리히 물류장비의 우수성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융하인리히 물류장비의 우수성과 안전성은 사실 유명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헤인의 서비스예요. 저희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장비 점검을 하는데, 이를 위해 헤인에서 직접 방문해 직원 대상 정기 교육을 해주세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헤인에서 지속적으로 정기 점검을 해주시고,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출동해 해결해주시니 언제나 마음이 놓이죠. 흔치는 않지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이 될 때까지 물류센터에 상주하는 모습을 보며 헤인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남윤각 대리는 융하인리히 장비의 우수성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헤인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홈플러스에서는 추가 장비 구매 시 단연 융하인리히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주)헤인 산업장비사업본부 이진호 차장은 “처음 물류센터가 생길 때 장비 스펙 선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함께했는데, 이제는 ‘홈플러스 사양’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융하인리히 장비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이 현장을 누비는 융하인리히 장비를 보고 직접 헤인으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며 융하인리히 장비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얼마 전엔 대전우편집중국 직원들이 목천물류센터를 방문했다가 융하인리히 장비를 보고 헤인에 연락을 해와 구매하기도 했다고.

배본직 물류센터장은 “장비의 장점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융하인리히 물류장비가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홍보 효과가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에서 인정을 받은 것만으로도 융하인리히 장비의 우수성과 헤인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이미 검증된 것 아니겠냐.”라며 (주)헤인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국내 물류센터의 표본이라 불리며 업계 최고임을 자부하는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와 장비 및 서비스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주)헤인. 최고와 최고가 만나 무한 시너지를 내는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를 찾아보길 권한다. ‘백문이 불여일견’. ‘최고’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것인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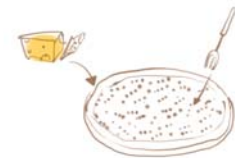
우리가 직접 만든 **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IT팀 김종엽 과장 가족의
피자, 치즈 만들기 체험



파란 가을 하늘을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빨간 고추잠자리, 그리고
그 녀석들을 쫓아다니는
귀여운 두 악동.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라더니,
부쩍 높아진 가을 하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겹다.
10월의 황금연휴를 맞아 (주)헤인의 IT팀
김종엽 과장 가족이 이천치즈스쿨을 찾았다.
맛있는 피자도 먹고 현장에서
직접 치즈를 만들었던
알콩달콩 여행기를 소개한다.

필/이용규 사진/이재범



Happy Together

지금쯤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아담한 교정, 녹슨 철봉. 이미
폐교되고 없지만, 곳곳에 학창시절의 흔적
이 남아 있는 모가분교를 체험학습장으로
새롭게 꾸며놓은 이천치즈스쿨은 부모님
세대에게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를, 우
리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운 학습체험의 장
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늘 김종엽 과장 가
족이 체험해 볼 종목은 우유에서부터 치즈
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치즈
만들기 체험과 우리 쌀로 만든 도우를 이용
해 피자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할 수 있는
피자 체험. 교정을 가로질러 뛰어오는 홍욱
이, 홍연이 두 형제와 그 뒤에서 다정스레
걸어오는 김종엽, 이재정 부부의 얼굴은 오
늘 경험해 볼 재미난 일들에 대한 기대와 호
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1 김종엽 과장이 도우 반죽을
던지는 고난도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

2,3 이천치즈스쿨 체험의 첫 번째
코스인 피자 만들기. 온 가족이
피자 토핑 꾸미는 데 열중하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 맛보실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인데, 오늘 직접 만들어 본다니까 좀 떨려요. 사 먹는
것보다 맛이 없으면 어찌지?”

이날 첫 코스로 마련된 피자 만들기 체험을 앞두고 조금은 설레고 걱정도 된다는 홍
욱이. 기왕이면 밖에서 사 먹는 피자보다 더 토핑이 화려하고 멋진 피자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고민도 된단다. 마침내 시작한 피자 만들기. 제일 먼저 준비된 도우를
꼭꼭 눌러가며 둥글게 반죽을 펼친다. 그런 다음 밀대를 이용하여 피자팬 크기로 골고루
피면서 공기를 뺀 후에 팬 위에 도우를 올려놓고 팬에 맞춰 잘라준다. 맛있는 피자의 생
명은 말랑말랑한 도우를 어떻게 반죽하느냐가 관건. 현장에서 시범을 보인 강사의 현란
한 손놀림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신이 났던지, 도우 반죽을 공중으로 던져 돌리는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여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아빠, 아빠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서요.” “저분들은 전문가 선
생님들이어서 하실 수 있는 거야. 만약 실수해서 땅에 떨어지면 못 먹게 되잖아. 대신 아
빠가 토핑을 멋지게 꾸며줄게.”

홍연이의 애교 섞인 요청에 일순 당황하긴 했지만, 금세 아이를 달래고 보듬어 주는
모습에서 역시 두 아이의 아빠다운 노련함이 느껴진다. 잘 반죽이 된 도우에 꼼꼼하게
토마토소스를 바르고 소시지, 송이버섯, 피망, 올리브, 치즈로 정성껏 장식하고 나니 드

디어 ‘홍육·홍연표’ 맛있는 피자가 완성되었다. 온 가족이 공동
여 만든 ‘작품’이 화덕에서 골고루 구워지는 동안 또 다른 체험에
나선 아이들. 다른 가족들의 피자과 절대 섞이지 않도록 신신당부
를 하는 모습을 보니 직접 만든 피자의 맛이 어떨지 어지간히 기대
되는 모양이다.

염소가 많이 먹고 건강해야 해

도심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흙을 만져보고 밟아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콘크리트 아파트 밀림에서 생활하는 탓에 동물들과 친
해질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 특히나 이렇게 가까이에서 염소와
토끼를 접해보기는 처음이라 혹시나 무서워하면 어쩌나 걱정했더
니, 이게 웬걸. 금세 아이들과 동물들은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때
문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
는 모양이다.

뒤이어 벌어진 송아지 우유 먹이기 체험에서도 전혀 겁내지 않
고 당당하게 어린 송아지 앞에 서 있는 홍육이와 홍연이. 이제 태
어난 지 3개월 남짓한 따뜻하고 뽕뽕송한 어린 송아지가 커다랗
고 착한 눈망울로 엄마 젖인 양 쪽쪽거리며 우유를 받아먹는 모습
이 무척이나 예쁜지 마지막 한 방울의 우유까지 성의 있게 먹이고
뿌듯해한다.

“저기 있는 염소는 시든 풀은 안 먹고요, 여기 이 송아지는 욕
심이 많아서 친구 것까지 빼앗아 먹으려 해요. 안돼, 사이 좋게 나
눠 먹어야 착하지.”

“우리 아이들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홍육이는 곤충에 관
심이 많아 잠자리도 잘 잡고 벌레도 겁내지 않고 잘 만져요. 엄마,
아빠는 겁이 많은데 아이들이 더 용감한가 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뒷다리가 끈에 꼬여 불편해하던 염소에
게 달려가 가장 씩씩하게 묶인 줄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엄마 이제
경 씨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없는데. 아무래도
이들은 사랑이 마음 가득 차 있는 ‘착한 가족’ 들임에 분명하다.



- 1 피자가 화덕에서 익어가는 사이, 아이들이 어린 염소에게
풀을 먹이는 체험을 하고 있다.
- 2 예쁜 천사 날개 벽화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가족.
홍연이의 표정이 천사보다 더 천사 같다.
- 3 치즈 원재료에 80℃ 정도의 뜨거운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모짜렐라 치즈가 된다. 반죽 후 홍육이가 맛을 보고
있다.
- 4 온 가족이 반죽을 해 완성된 모짜렐라 치즈.
- 5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며 사뭇 진지해진 홍육이와 홍연이.



우리 엄마 아빠는 쫄쫄쫄쫄한 치즈처럼 다정해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고 해도 정성 들어 직접 만들어 먹는 깊은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법. 드디어 바삭하게 잘 구워진 ‘홍육·홍연표’ 피자를 시식하는 순간, 기대 이상의 뛰
어난 맛에 엄마, 아빠도 놀라고 아이들은 신이 난 표정이다.

“우리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엄마, 이제 집에서 피자 만들어 주실 거죠?”

“여기 있는 치즈 원재료에 뜨거운 물을 붓고 열심히 반죽하면 모차렐라 치즈가 된
대. 정말 신기하지? 홍육이, 홍연이 치즈 좋아하니까 많이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자.”

점심시간이 지나 치즈 만들기 체험에 들어가서도 계속 피자 타령을 하는 홍육이의
질문에 얼른 화제를 돌리고 마는 아내를 지켜보며 김종엽 과장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린
다. 집에서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재미있는 아빠, 엄마로 통하는 김종엽 과장과 부인 이
재경 씨는 초등학교 동창생. 코흘리개 시절에는 서로에 대한 기억이 없었지만, 성인이
되어 만나고 보니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구나 싶더라. 남편의 진중한 모습에 반했다
는 아내, 아내의 소탈하고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평생의 반려자로 꼭 붙잡아야겠다고 마
음먹었다는 남편. 이렇게 늘 다정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두 아들의 눈에는 어
찌면 엄마, 아빠 사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쫄쫄쫄한 모차렐라 치즈처럼 고소하고 깊은
맛으로 다가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늘 다정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두 아들의 눈에는
어찌면 엄마, 아빠 사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쫄쫄쫄한 모짜렐라 치즈처럼 고소하고 깊은 맛으로
다가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직장생활에 메인 가장들이 가장 자주 내뱉는 핑계거리 중 하나는 ‘바빠다’는 것이
다. 김종엽 과장 또한 그런 바쁜 아빠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해인사
요술램프’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가족들과 제대로 된 가을 여행도 하고 싶었고,
또 무엇보다 입사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중견 새내기’ 인지라 이 기회를 통해 전국에
있는 해인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한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고 즐거운 체험이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의 마음
보다 뭔가 더 충만해진 기운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요. 소박하지만
우리 네 식구가 힘을 모아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온 가족이
함께 한 시간이라 더욱 보람되고 종종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울러 이 자리를 빌려 해인사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팀
김종엽 과장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해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헤인 최초 필리핀 현지법인, HIG&T Green 기업으로 성공신화 일궈내다

한국은 연간 철스크랩 자급률이 70%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소비량의 3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철스크랩 시장은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건설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헤인은 철스크랩 매입 및 수출 사업 진출을 위해 필리핀 현지에 자회사 HIG&T를 설립하였다. HIG&T 최기재 차장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필리핀 최대 제강사의 주요 파트너사로 부상하며 철스크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HIG&T의 경쟁력과 성장배경을 들어보았다.

☞ 이성숙



▶▶▶ 일궈낸 필리핀 성공기

(주)헤인은 지난해 6월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 독립법인 HIG&T(HAEIN Global & Trading Philippines Corporation, 이하 HIG&T)를 설립하고, 필리핀 철스크랩 사업에 진출하였다. HIG&T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 라우니온 주의 산페르난도 시티에 위치한 스크랩 전문 업체로, 필리핀 내에서 철스크랩을 사들여 필리핀 현지 제강사 및 한국 제강사에 납품하고 있다.

HIG&T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기재 차장은 “한국 스크랩 산업을 살펴보면 철스크랩 자급률이 70%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사에 철스크랩을 공급하는 중형업체 350여 개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규모의 사업장으로 업체 간 과다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 철스크랩 업체들의 수익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라고 전한다.

필리핀은 제철·제강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양의 스크랩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스크랩을 매

입할 수 있어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필리핀이 경쟁력 있는 신흥시장임은 분명하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도 내재해 있어 그동안 국내 스크랩 업체들은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주)헤인은 향후 50년 헤인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사업 발굴의지와 필리핀 철스크랩 시장의 잠재력을 직시하고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였다.

필리핀은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해 해외원조와 해외로부터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이다. 철스크랩 산업 역시 현대화된 스크랩 이동 및 가공 장비 없이 대부분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낙후된 산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스크랩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기재 차장은 “필리핀은 제철, 제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양의 철스크랩을 해외로 수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철, 제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 내에서 동 산업에 대한 부흥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포항 제철 설립 등을 통해 공업화 붐이 조성되던 1970년대와 유사한 움직임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덧붙여 “자국 내에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 발전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필리핀 역시 제철, 제강사의 설립 및 산업 안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 자국 내 스크랩 수요도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예상했다.

2010년 6월 29일 독립법인 설립을 완료한 HIG&T는 지난 2월 21일 대한제강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는 대한제강에 3,600톤 규모의 철스크랩을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이는 첫 수출이라는 의미와 함께 국내에선 보기 드물게 벌크선을 이용해 대량공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설립 반년 만에 일궈낸 놀라운 성과였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권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하는 최기재 차장은 “지난 4월 첫 수출을 무사히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한 번에 보상받는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마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벌크선을 이용하여 철스크랩을 수출한 회사는 당사가 최초일 것입니다. 특히 스크랩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주)헤인이 필리핀에서 직접 스크랩 야드를 운영하여 한국으로 스크랩을 수출했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제강사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하니 절로 뿌듯해했습니다.”라고 감회를 털어놓았다.

HIG&T는 이미 필리핀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제강사인 스틸아시아(STEEL ASIA) 직납권을 획득하는 등 필리핀 내에서도 스크



필리핀은 제철·제강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양의 스크랩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스크랩을

매입할 수 있어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주)헤인은 향후 50년 헤인의 미래를

책임질 신규 사업 발굴의지와 필리핀

철스크랩 시장의 잠재력을 직시하고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였다.

철스크랩 사업은 도시 광산업의

일종으로 자원의 재활용 및 탄소

줄이기에 이바지하는 등

친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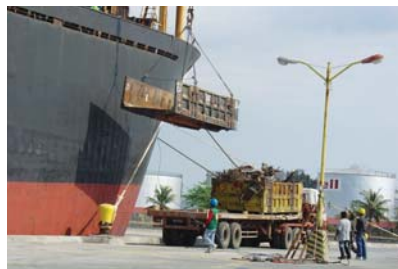
제품의 원가를 결정짓는 원부자재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철강업체들은

안정적인 철스크랩 납품업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랩 매입 사업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필리핀 내 스크랩 가격이 인상되면서 한국수출 확대보다는 필리핀 내의 제강사 납품에 주력하고 있는 HIG&T는 당분간 현지 사업안정화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최고의 제강사가 인정한 철스크랩 기업

철스크랩 사업은 도시 광산업의 일종으로 자원의 재활용 및 탄소 줄이기에 이바지하는 등 친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품의 원가를 결정짓는 원부자재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철강업체들은 안정적인 철스크랩 납품업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제강사들은 해외에 스크랩 야드를 직접 운영하거나 국내의 스크랩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물량확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HIG&T 최기재 차장은 “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큼니다. 철스크랩 시장 역시 우리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결국, 제강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스크랩을 구매할 수 있어야 철로 만드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



다.”라고 강조하며 “때문에 중대형 스크랩 업체들은 가공설비 성능개선 등을 통해 스크랩의 품질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양질의 스크랩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HIG&T 역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래노선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고객사뿐만 아니라 필리핀 제강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스크랩 사업의 구조상 공급처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매입 가격이다. 아무리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해도 가격변수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HIG&T는 한국 내 주요 협력업체인 (주)신성강업과 협조를 통해 주요 제강사들 추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필리핀에서는 현지 스크랩 업체와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부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스크랩을 납품하는 공급처 이외에 필리핀 정부 기관이나 군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입찰을 통해 스크랩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HIG&T는 필리핀 현지 파트너인 APRO TRADING과의 협력을 통해 입찰 물량을 확보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필리핀 스크랩 업체들이 대부분 수작업을 통해 스크랩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는 반면 HIG&T는 스크랩 상·하차 시 굴삭기를 운용하는 유일한 업체다. 상·하차에 따른 공급처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HIG&T만의 마케팅 서비스로 공급업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철스크랩 사업에 대해 최기재 차장은 “유럽의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국 내 경기 역시 원화 환율 급등 탓에 스크랩 업체와 제강사 모두 앞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내의 스크랩 가격 역시 지난해에 비하면 20% 이상 상승해 현지시장에서의 물량확보 및 판로개척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목, 건설 개발이 활성화되다 보니 스크랩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HIG&T, (주)혜인의 또 다른 미래

HIG&T는 이미 설립 반년 만에 18여 억 원 매출달성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배경에는 (주)혜인의 전폭적인 지지와 최기재 차장의 혹독한 필리핀 적응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필리핀은 한국의 1960년대와 2011년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는 한국의 1960년대이지만, 메트로 마닐라 중심지의 빌딩과 자동차들은 선진국만큼이나 화려하다. 이러한 격동적 환경 속에서 HIG&T 최기재 차장은 HIG&T를 Recycling을 통한 ‘Green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차장은 “재활용 사업인 스크랩 사업에 대해 폐기물 처리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스크랩은 폐기물이 아닌 자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HIG&T는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내려놓은 초보 스크랩 업체이지만, 친환경 재활용을 통한 스크랩 전문 업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스크랩 공급 업체와의 동반 성장은 물론 납품 제강사와의 유연한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HIG&T 필리핀 법인의 도전과 성장은 끝이 없다. 이미 필리핀 현지에서도 성장발판과 사업안정화에 성공한 HIG&T는 한국 기업 최초로 필리핀에 진출한 스크랩 전문 업체를 넘어, 신규 매출창출을 통해 철강 전문 기업으로까지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이다. 🇵🇭





1 오른쪽부터 KBS비즈니스 박은열 대구사업소장, (주)헤인의 EPS팀 안주현 과장, 장비 유지관리와 서비스를 맡은 혜성파워텍(주) 강성중 대표, KBS비즈니스 권오상 실장. 2 지난 정전사태 때 KBS 대구총국을 정전의 위기로부터 지켜줬던 캐터필라 비상발전기. 3,4 KBS비즈니스와 (주)헤인은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KBS비즈니스 대구사업소 방송국 사전에는 ‘정전’이란 말이 없다

방송국이 정전되는 상황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방송 일이기 때문에 전기 없는 방송국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송국만큼 캐터필라 비상발전기가 큰 활약을 하는 곳도 또 없다. 지난 9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KBS대구방송총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KBS비즈니스 대구사업소를 찾아가 캐터필라 비상발전기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글/ 김희정 사진/ 이재범

방송국은 365일 온 에어

지난 9월 15일, 갑작스러운 정전사태가 일어났었다. 이일로 전국 10만 가구가 손해를 입었고,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휴대전화 한때 먹통이 되는 등 전국이 혼돈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언제 닥칠지 모를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비상발전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캐터필라 비상발전기가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전국 순환 정전사태 때 사실 저희도 당황했죠. 그런데 캐터필라 비상발전기 덕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KBS비즈니스 대구사업소 박은열 소장이 정전 당일의 아찔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날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전될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습시다. 저희는 두 개의 변전소에서 전기를 받고 있는데 통보 후 한쪽 변전소에서 임의로 정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때 다른 변전소에서 자동으로 전기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쪽으로 회선이 넘어갈 때 순간정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간정전이기에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캐터필라 비상발전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KBS비즈니스는 KBS한국방송의 자회사로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KBS 88체육관에 본사 두고 있는 시설관리 전문회사다. KBS 본관과 신관 등을 비롯해 16개 지역 방송시설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KBS비즈니스는 88체육관 운영과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방송국 시설관리 관련해 저희만큼 전문적인 조직이 또 없을 겁니다. 방송국 청사 수탁관리는 물론이고 작년부터는 난시청 해결을 위한 업무까지 지원하며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박은열 KBS비즈니스 대구사업소 소장은 이어 “저희 일이 전문화된 것지만, 업무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협력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비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회사를 통해 보완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헤인은 참 든든한 협력사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 전국 규모의 정전 사태도 별일 없이 넘어간 것만 봐도 알잖아요.”라며 헤인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


캐터필라 비상발전기는 KBS비즈니스 대구사업소가 관리하는 KBS대구방송총국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약 70여 대가 설치되어 있다. KBS는 헤인의 40년 고객으로 캐터필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해 비상발전기를 꾸준히 구매해온 우량고객이다.

“저희는 주로 시설관리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동종업계 사

람들을 만나 여러 제품의 비상발전기 성능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캐터필라 우수성을 더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후 서비스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유지, 관리가 안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캐터필라 비상발전기는 그런 면에서도 단연 우수합니다.” 시설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KBS비즈니스 대구사업소 권오상 실장은 방송국만큼 비상발전기를 잘 활용하는 곳도 없을 거라며 헤인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칭찬했다. 특히 UPS 교체 등 전기설비공사를 할 때면 비상발전기에만 의존할 때가 있는데, 단 한 번도 캐터필라 비상발전기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 큰 공사를 할 때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헤인 직원이 새벽이고 언제고 방송국에 상주하며 대기를 하고 있어 마음 놓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시설관리를 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비상발전기만은 헤인에서 잘 관리해 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없다는 게 권오상 실장의 말이다.

“헤인 직원이 자주 와서 비상발전기를 꼼꼼하게 관리해 줍니다.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주시니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영업맨’의 개념이 아니라 ‘파트너’의 개념으로 항상 관리해주셔서 그 점이 참 좋아요.” 권오상 실장의 칭찬이 끝이 없다. 인터뷰에 동석한 (주)헤인 EPS팀 안주현 과장이 “캐터필라 장비를 믿고 써주시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죠. KBS비즈니스는 비상발전기 운전 정비 매뉴얼에 따라 평소에도 항상 시설관리를 꼼꼼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훌륭한 고객입니다. 저희 장비를 이렇게 잘 활용하시니 오히려 저희가 고맙죠.”라고 훈훈하게 화답한다.

KBS비즈니스의 우수한 시설 관리 능력은 사실 꾸준한 사전교육에 기인한다. KBS비즈니스는 자체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해 장비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헤인 또한 천안공장에 마련된 교육실에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직접 참여했던 권오상 실장은 “강사진들의 전문성에 놀랐습니다.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실무에 큰 도움이 되 고요. 장비를 판매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 및 기술교류를 한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다르더라고요.”라며 사후 서비스 중 하나인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송 스태프들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쯤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KBS비즈니스처럼 방송국의 시설관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 숨겨진 노고를 잘 아는 헤인은 캐터필라 비상발전기만큼은 책임지고 관리해주겠다고 그들의 손을 잡는다. 서로의 힘든 짐을 덜어주는 것. KBS비즈니스와 (주)헤인의 파트너십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오늘 저와 함께 점검해 보실 장비는
캐터필라 험지용 트럭 740입니다!!

건조한 가을, 철저한 장비 점검이 필요할 때!

가을은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는 계절이지만, 습기가 적고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장비를 점검한다면 화재예방은 물론 월동준비까지 하게 되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필/이중희 대리(고객지원센터) 사원/박경목 사원/최신국 사원(전안공장)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1 장비 전체 육안검사 시행

가장 먼저 장비 전체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 물질이 생성되지는 않았는지, 볼트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또 파손되거나 마모된 부품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일이나 냉각수가 누유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평평한 곳에 주차한 뒤 체크해야 합니다.”

2 냉각계통 냉각수량 확인

장비의 시동을 끈 후, 운전석 후면 냉각수량 투시 게이지의 냉각수량이 적정인지 확인한다. 냉각수량은 투시 게이지의 중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 연료 계통 1차 필터 수분 배출

연료 계통에는 습기가 찰 수 있다. 엔진 후드를 올리고 수분분리기의 아래쪽에 있는 배출 밸브를 열어 수분만 빼내고 다시 밸브를 닫는다.



“장비의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결속한 후에 점검하세요.”

4 호이스와 브레이크 계통 오일량 점검

엔진 시동을 끄고 장비 전방 왼편에 투시 게이지를 통하여 오일량을 점검한다. 오일은 작동 온도 시 최소 아래의 빨간 라인 위로 유지하면 된다.



5 윈도우 와이퍼와 안전벨트 검사

와이퍼를 작동시켜보고 만일 와이퍼 날이 마모 또는 손상되었거나 전방 유리창에 줄무늬 등이 나타나면 교환한다. 와이퍼 날의 손상이나 과도한 이물질에 의하여 전방 유리창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매일 점검해야 한다. 안전벨트의 상태도 항상 검사한다.



“주행 전 확인, 잊지마세요.”

6 각종 지시계 및 후진 알람 점검

해당 장비는 주행 장비이므로 작동 전 전방에 각종 지시계를 확인한다. 장비 키가 켜진 상태에서 모니터는 자동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 지시계의 문제 시 표시창에 고장 코드를 발생시킨다.



7 엔진 후드, 각종 커버와 가드 고정 확인

엔진 후드, 각종 커버와 가드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이후 타이어 점검까지 마무리하면 끝.

Tip 미리미리 월동준비 하자

- A. 연료 히팅 장치를 설치한다.
- B. 배터리 상태를 점검한다.
- C. 냉각수를 점검한다.
- D. 연료 필터 여분을 준비시킨다.

동해 바다의 향을
꽉꽉 채워 담은

오징어순대 & 아바이순대

(주)헤인
동해지점 주변
맛집 탐방



“와, 바다다!!” 동해까지 왔는데 바다는 보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동해지점 직원들의 성화에 부랴부랴 달려온 추암 해변. 입구에서부터 빨랫줄에 빨래가 널리듯 오징어가 사방에 걸려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바닷물은 맑다 못해 속 안이 흰히 드러나 보일 정도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풍부한 어장을 형성한다는 강원도 동해는 어종도 다양한 데다가 청정해역에서 잡아올린 해산물들은 그 싱싱함이 배가 되고, 이러한 싱싱한 해산물로 만든 음식들이 예로부터 향토음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오징어순대 맛있게 하는 집을 아는데, 그쪽으로 가실까요?” 동해지점의 장건우 대리가 맛집 안내를 자청하고 나섰다.

☞ 윤지연 경영지원팀 홍보파트 대리 ☜ 이재범

강원도에 날이 밝으면 오징어잡이 배들이 속속 항구에 들어오고, 어 시장은 동해에서 나는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 채워진다. 오징어잡이를 생업으로 삼아온 이 지역 주민들은 예로부터 오징어 몸통을 통째로 찌기도 하고 남은 오징어 내장으로든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오징어로 생을 이어온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맛은 어떨까. 추암 해변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않아 장건우 대리가 안내한 음식점이 보인다. 그곳은 점심시간도 채 안된 시간, 동해를 찾은 사람들이 모두 여기로 왔나 싶을 정도로 붐비고 있었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징어순대. 그리고 옆에는 마치 짝꿍처럼 거무스름한 빛을 띠는 순대가 같이 놓여 있었는데, ‘아바이순대’라고 한다.

“이곳에 오면 항상 두 가지 순대를 같이 주문합니다. 각자 특유의 맛이 있어 별미라고 할 수 있죠.” 박찬표 동해지점장이 두 가지 순대를 주문했다. 먼저, 오징어 몸통 속에 찹쌀과 야채로 꽉 채워진 오징어순대가 나왔다.

“동해는 오징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맘때가 몸통이 가장 크고 살집이 두터워 쫄득한 식감이 최고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또 가장 많이 잡히기도 하고요, 가장 맛있을 때 잘 오셨어요.” 취재진을 알아본 ‘칠보면옥’ 대표가 설명을 곁들인다.

오징어는 다채로운 조리법으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식재료다. 또, 예로부터 감기에 걸렸을 때 오징어 굽는 냄새와 연기만 마셔도 낫는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질 정도로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오징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기다리니, 손님들이 먹던 그 ‘아바이순대’가 ‘오징어순대’ 옆 자리를 차지했다. “아바이는 뭐죠?” 말로만 들었던 아바이라는 이름에 무슨 사연이 있을지 문득 궁금해졌다.

예로부터 순대는 지방마다 들어가는 재료나 순대 속을 채우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는데, 함경도에서는 돼지 대창 속에 찹쌀밥을 버무려 만들고, 강원도에서는 돼지 창자 대신 오징어를 사용해 순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국 전쟁 발발로 폭격을 피해 피난 온 함경도 사람들이 강원도 일대에 정착하면서 ‘아바이마을’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 마을에서 오징어에 주식과 부식을 가득 섞어 넣어 순대를 먹던 것이 전해 내려와 본래 강원도 주민들이 만들어 먹던 오징어순대와 아바이순대가 함께 강원도의 대표음식이 된 것이다.

“이제 순대 얘기는 그만 하고, 한 번 맛을 보셔야죠.” 흔히 먹어왔던 순대와는 달리 찹쌀과 각종 야채들로 속이 꽉 차 있어 순대 한 점에도 마냥 입이 즐겁다. 새우젓과 무말랭이, 간장 등을 곁들여 먹으니 더욱 맛있다.

한 지역에 특색 있는 두 가지 순대가 공존한다는 것도 독특하지만, 이 맛의 이면에는 고향을 잃고 그리움을 달래야 했던 실향민들의 아픔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 아픔을 딛고 삶을 일군 원동력은 이 ‘고향의 맛’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려운 시절부터 지역 성장과 함께해 온 강원도의 진정한 향토 음식. 저렴한 가격에 두 순대를 다 맛볼 수 있으니 대중적으로도 두루두루 사랑받을 수 있는 음식이라 하겠다. 📞



1 평소에도 순대를 즐겨 찾는다는 동해지점 직원들과 경영지원팀 홍보파트 윤지연 대리(왼쪽부터 남자만 동해지점 박찬표 지점장, 장건우 대리, 양희준 과장) **2** “속이 꽉찬 아바이순대 한 번 맛보실래요?” **3** 오징어 몸통 속에 찹쌀과 야채로 꽉 채워진 오징어순대. 계란 물을 묻혀 살짝 부쳐낸 모양이 마치 동그랑땡 같다.

〈칠보면옥〉

주소 강원 동해시 대구동 33-3, 7번국도 추암롯데비워입구 SK주유소 옆
전화 033)521-8897

오랜 세월 동안 갖가지 재료로 속을 꽉 채워가는 ‘동해지점’

동해지점은 (주)헤인 지점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지점으로, 초대형 캐터필라 건설장비를 보유한 고객사를 담당하면서 헤인 대표 지점으로 성장했다. 1977년 당시 헤인의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였던 쌍용자원개발(주)의 시멘트 사업 확장으로 캐터필라 건설장비를 비롯해 채굴 장비 및 비상용 발전기 등을 대량 판매하면서 원활한 부품 공급 및 정비 서비스를 위해 개설된 사무소가 현재의 동해지점의 전신이 되었다. 최근에는 강원도 지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및 LNG 생산기지 건설, 화력발전소 운영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책 사업 덕에 건설 경기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에 따른 캐터필라 건설장비 라인업 소개 및 서비스에 대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주소 : 강원 동해시 단봉동 669번지 전화번호 : 033)522-5211



인테리어의 꽃, '조명'

불을 켜도, 켜지 않아도

공간이 살아난다

멋진 가구와 화려한 패브릭만으로 공간을 다 꾸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뭔가 허전하다면 그것은 조명이 빠졌기 때문. 실용적인 기능뿐 아니라 미적인 기능까지 담당하며 인테리어의 꽃이라 불리는 조명에 대해 알아본다.

필/박영화 지음/「작은 집이 좋아」, 「이야기가 있는 인테리어, 집」

유일한 자연광인 태양광을 제외한다면 인류 최초의 인공 조명은 선사시대 인간이 사용한 '불'이 시초였다. 불의 발견 이후 기름등잔에서부터 양초, 백열등,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LED에 이르기까지 조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화, 발전되고 있다.

조명의 존재 이유는 역시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 하지만, 최근 인테리어의 핵심요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심지어 인테리어의 완성도는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을 잘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될 정도. 즉, 조명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공들여 꾸며도 멋진 공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조명(照明), 그 빛나는 이름

조명은 잘 활용하면 평범한 공간도 멋진 카페나 갤러리 못지않은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예쁜 조명을 놓는다고 공간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먼저 조명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조명을 분류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형광등을 사용하는 메인 조명, 실링 라이트 ● 실링 라이트는 풍덩이처럼 납작하게 천장에 붙은 채로 집 안 곳곳을 밝혀준다. 심플한 디자인인 실링 라이트는 밤에 내어 켜 놓고 생활하는 메인 조명으로 대부분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다.

천장에서부터 길게 떨어지는 조명, 펜던트 ● 펜던트는 천장에 달아 늘어뜨려 원하는 공간을 비추는 조명이다. 빛의 90~100%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부분적인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조명이다. 펜던트의 매력은 불을 켜도 아름답지만 켜지 않아도 맛있는 공간을 특별한 공간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키가 큰 플로어 스탠드 & 키가 작은 테이블 스탠드 ● 조명으로서의 역할보다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조명이 바로 '스탠드'다. 메인 조명을 모두 소등한 상태에서 스탠드 하나만 켜두면 공간이 한결 멋스럽게 연출된다. 스탠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거실이나 침실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긴 '플로어 스탠드'와 책상이나 협탁, 테이블 위에 놓는 작은 '테이블 스탠드'이다.

이 밖에도 방향과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벽면의 그림이나 특정한 곳의 물체를 비추는 데 쓰이는 '스포트라이트'와 벽에 부착하여 벽을 꾸미는 '브래킷'이 있다. 브래킷은 현관이나 복도에 설치해서 아늑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를 낸다.

조명으로 살아나는 공간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실용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명은 눈의 건강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밝기, 기능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어떤 공간에 어떤 조명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메인 조명과 보조 조명이 조화를 이뤄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눈의 피로는 훨씬 줄어든 것이다.

인테리어의 완성도는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을 잘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될 정도.

즉, 조명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공들여 꾸며도

멋진 공간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침실은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침실. 침실은 간접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침대나 바닥에 누웠을 때 빛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발끝 위에 빛이 떨어지게 배치하는데, 주로 벽등을 설치하거나 침대 옆에서 빛을 모아주는 스탠드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심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메인 조명과 보조 조명이 조화를 이룬 거실 ● 대부분 거실에는 메인 조명의 밝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보조 조명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활동의 주 무대인 거실도 메인 조명과 보조 조명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메인 조명은 밝기는 좋으나 눈에 피로를 주기 때문에 간접 조명으로 눈의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서늘한 기온이 드는 가을에 플로어 스탠드를 거실 한쪽에 두어 따뜻한 기온이 돌게 한다.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주방 조명 ● 주방은 요리하는 곳이므로 조명을 밝게 해야 한다. 식탁의 경우 음식을 더욱 맛있어 보이기 위해 푸른색이 도는 형광등보다 노란색을 내는 백열등이나 할로겐을 활용한다. 주방은 격조 있는 식탁 분위기를 위해 주로 펜던트 조명을 설치한다.

제품 수명을 연장해 유지비용을 대폭 절감시켜주는 캐터필라 순정 부동액 ELC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냉각수가 얼어 발생할 수 있는 장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액 교환을 고려하게 된다. 중장비의 작업 환경상 진동이 심하고, 교환 주기나 조건이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므로 중장비 엔진에는 반드시 중장비의 환경에 맞게 설계된 부동액을 사용해야 한다. 헤인에서는 금년 가을, 고객들의 월동 준비에 보탬이 되고자 캐터필라 장비 뿐 아니라 타사 장비의 엔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중장비 전용 캐터필라 순정 부동액 ELC(Extended Life Coolant)’를 새롭게 런칭했다.



캐터필라 ELC는 다른 캐터필라 순정부품과 마찬가지로 캐터필라사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어 개발, 승인된 제품이다. 냉각기관에 주로 사용되는 구리, 알루미늄, 땀납 등의 금속은 부식되기 쉬우나, 캐터필라 ELC는 냉각계통을 이루는 금속의 산화 진행을 막아주는 우수한 포플러 기술을 통해 제품 유지 비용을 절감시켜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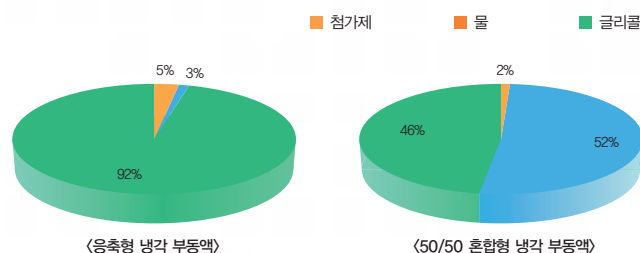
또한, 헤인에서는 정기적으로 오일을 채취, 분석하여 주요 구성품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는 S.O.S(Sampled Oiling Service) 서비스 시행으로 갑작스런 고장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장비의 운휴시간을 줄이고 정비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6,000시간 후 ELC 증량제 투입을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특히 S.O.S Level 2 서비스 이용 시에는 6,000시간의 기본 교환 주기를 12,00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품상성

1) 뛰어난 냉각성능과 우수한 부식방지능력

50/50은 물과 부동액이 각각 50%임을 의미한다. 부동액 농도(글리콜)가 60% 이상이 되면 '냉각' 성능이 저하되고, 부동액 농도(글리콜)가 40%미만이 되면 녹과 방청성능이 떨어져 부식을 일으킨다. CAT ELC는 50/50 혼합형 냉각 부동액으로써 '냉각성능'과 '부식방지능력'이 뛰어나다.



2) 유지비용 절감의 탁월한 효과

제품특성상 '유기 첨가제'의 고갈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따라서 일반 부동액에 비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첨가제가 없어 유지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또한 기본 6,000시간의 교환주기가 돌아왔을 때, SOS Level 2 서비스를 받거나 CAT 증량제를 한 번만 넣어주면 최대 12,000시간의 교환주기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은 유지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냉각시스템 관리의 중요성

일반 냉각부동액을 사용한 후(5,300시간)와 CAT ELC를 사용한 후(10,103시간)의 트럭엔진 냉각 시스템을 각각 비교해 본 결과, CAT ELC를 사용한 트럭 엔진의 냉각 시스템이 일반 부동액을 사용한 것보다 부식, 침식 및 공동현상이 현저히 작게 나타났다.

*공동현상(cavitation)
유체 속에서 압력이 낮은 곳이 생기면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물에서 빠져나와 압력이 낮은 곳에 모이는데, 이로 인해 물이 없는 빈공간이 생긴 것을 가리킴.

◎대표적인 특성들

색	붉은색
끓는점	
50% CAT ELC / 50% Water	129° C(265° F)
어는점	
50% CAT ELC / 50% Water	-37° C(-34° F)
Nitrite(50% solution)	500ppm
Molybdate(50% solution)	530ppm

*여기에 보이는 수치는 대표적인 수치이며 제품을 수용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품질관리 수처로 사용되어선 안 되며, 이들 명세사항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구입문의 : MP본부 전략마케팅팀 부품파트 02)3498-4620

캐터필라사가 선정한 BEST PRACTICE

부품운영서비스시스템 PMAO

그 동안 부품 수출입 및 입고, 운영 업무는 그 회사의 재무 및 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속함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어 왔다. 헤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팀 IA(Inventory Audit)파트에서는 부품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진 정보 테크놀로지와 반세기 동안의 업무 개선 경험을 담아 부품운영서비스시스템(PMAO : Parts Management Assistant Organizer)을 개발, 출시했다.



PMAO는 올해 6월에 개최된 캐터필라 아시아 딜러 부품 운영 세미나에서 캐터필라 딜러들 중 최고의 업무개선사례로 선정되어 타 딜러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하는 등 부품 운영 업무에 큰 혁신을 몰고 왔다.

PMAO의 주요 기능은 부품 수출입, 부품 입고, 부품 발주, 부품 정보 SMS 안내 서비스, 부품 관리 정보 시스템, 전자문서 관리 등이다. PMAO는 이메일 및 SMS 자동 발송 기능을 통한 부품 발주 및 입고 작업 단순화, 파일 전송 프로토콜(FTP)을 통한 전자문서 관리 등 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부품 운영 관리 업무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부품 운영 자료의 자동 처리와 공유를 통해 내부 고객의 만족은 물론 외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과 같은 선진 프로세스 도입 시 예상되는 현실 업무와의 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등 단순 업무 지원 소프트웨어의 차원을 넘어 그동안 헤인이 Best Practice 사례로 경험해 온 성공 요인을 실현한 데에 그 의의가 깊다.

PMAO는 부품 운영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 현황을 SMS서비스하는 기능을 마련,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수신번호를 013-3366-7979로 하여 해당 부품번호를 문자로 전송하면 헤인 각 지점의 실시간 부품 재고수량과 판매가격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부품 운영 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들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부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



※ 문의 : MP본부 SCM팀 IA파트 041)621-1552

우리 아이 식습관 평생 건강 좌우한다

금쪽같은 내 새끼 잘 먹고
잘 자고 무럭무럭 자라 주면
좋으련만, 어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밥상 앞에서
입 꼭 다물고 거부권
행사하는 아이들 때문에
조바심내는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영양학자 조엘 필먼 박사는
“생후 10년간 먹은 음식이
아이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만은 안 될 일.
우리 아이 평생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당장 개선이
시급하다.

글/ 백경미



“이거 한 번만 먹어보자? 응? 이것만 먹으면 너 갖고 싶은 거 엄마가 다 사줄게.”
“싫어.”

직장인 윤 씨의 아침, 매일 밥 먹는 걸로 아이와 씨름하느라 오늘도 진이 다 빠질 지경이다. 출근준비하랴 설거지하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아이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여보겠다고 전쟁을 치른다. ‘배고파서 먹겠다고 할 때까지 굶기라’는 육아 선배들의 조언이 혹하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되나 싶다. 저러다 또래 아이들보다 더디게 자라지 않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고민이 비단 윤 씨만의 문제는 아닐 터. 우리나라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정도가 자녀의 식습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만큼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 균형이 깨져 성장기 발육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뇌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쳐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된다. 실제로 ‘잘못된 식습관은 아이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쳐 유난히 예민하거나 난폭한 성격의 아이를 만든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유식을 단계별로 접해 주지 않았거나 호기심이 많아 주의가 산만한 경우, 또는 특정 음식의 맛이나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해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건강 이상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이의 식습관 문제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유식 단계가 궁금해요



아이가 처음으로 음식을 접하는 이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이유식을 섭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유식 단계는 생후 4~6개월의 초기, 생후 7~9개월의 중기, 10~12개월의 후기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유식 초기에는 하루 한 번 미음이나 과일즙 등의 반유동식을 20cc 정도로 시작하여 100cc 정도까지 점차 양을 늘려가며 먹이고, 중기 때는 묽은 죽이나 으갠 야채, 완숙란 등 씹기 부드러운 음식을 하루 두 번 준다. 그리고 후기에는 하루 세 번 밥을 먹듯 이유식을 주면 되는데, 생선, 달걀, 다진 고기 등 단백질 위주로 먹이는 것이 좋다.

쫓아다니며 먹여도, 화를 내보아도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안 먹는 아이는 대부분 간식이나 과일 등을 좋아한다. 간식의 양을 줄이고, 과일을 먹일 때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은 피하고 소량만 먹이도록 한다. 그리고 목 말라할 때는 주스나 우유 등의 음료보다는 물을 마시게 한다. 밥 먹는 환경 역시 중요하다. 먹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행동을 못하게 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릇에 밥을 담아주는 것 역시 좋은 방법.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쫓아다니며 먹이거나 강요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임을 명심하자. 처음부터 양을 정해 놓고 아이에게 먹이려 하면 아이는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먹고 싶어 하는 만큼만 먹이고 간식을 줄이면 활동량이 많은 아이는 금세 허기짐을 느끼게 되므로 스스로 먹는 양을 늘릴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야채와 채소만 쓱쓱 골라내고 먹어요



야채나 채소는 생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채소 특유의 향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으므로 즐겨 먹는 음식에 넣어서 조리하도록 한다. 볶음밥을 만들 때 넣거나 채소 튀김 등을 만들어 주면 좋다. 또한 밥을 지을 때 시금치즙이나 당근즙 등을 넣으면 보기도 좋고 영양에도 좋으니 한번 시도해 보자.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좋아해요



인스턴트 식품은 소아비만의 지름길. 짭뽕, 단맛이 강한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는 평소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입맛이 결정된다. 만약 우리 가족의 식탁에 자극적인 음식이 많다면 아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식습관을 바꿔야 아이도 이러한 식습관을 고칠 수 있다. 마른 버섯, 다시다 등을 갈아서 만든 천연 조미료를 이용하고 설탕 대신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낸다. 또한 소금은 정제소금을 사용하되 그 양을 현저히 줄이고, 조미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잘못된 식습관은 한 번에 고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노력이다. 진심으로 아이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조금 더 신경 쓰고 마음을 쏟아야 한다. 내 아이가 골고루 다양하게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조리법에 신경 쓰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함께 바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아이의 편식으로 골머리 썩고 있다면 반드시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Tip

식습관 개선을
위한 10가지 생활수칙



- 1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대신 거친 음식을 먹여라.
- 2 2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식사하라.
- 3 아침밥은 반드시 먹도록 한다.
- 4 매일 색이 다른 채소, 과일을 섭취하라.
- 5 갈슘 1일 허용치를 반드시 섭취하라.
- 6 최소 이틀에 한 번,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라.
- 7 식사일지를 꼭 쓰도록 한다.
- 8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군것질을 끊을 수 있다.
- 9 단 과일은 오히려 해가 된다.
- 10 야식은 최대의 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다음 날 아침에 먹여라.

도서 『아이의 식생활』 중 발췌



드라마 속 멋진 주인공들을 보면서 ‘어쩔 저렇게 멋질까? 예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부러움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위해 기획된 가을호 Wake Up!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들로 변신한 헤인스를 만나보자.

글/ 김민선 사진/ 이재범 스타일링/ 박정서 헤어/ 김광호

Before ...

女 : 이민정_재무본부 재무팀 재무파트 사원

어느새 입사 6년차가 되었네요. 경영지원팀에서 급여 업무를 하다가 재무팀으로 옮긴지는 2년 정도 있었어요. 회사의 모든 자금의 입출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여주지 못했던 제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평소엔 정장 스타일만 고수했는데, 20대다운 발랄한 스타일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男 : 황인성_MP본부 SCM팀 IA파트 대리

헤인스에서 BKT 타이어에 대한 판매량을 예측하여 주문하고, 입·출고 관련 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맨(특정부품)에 대한 싱가포르 재수출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 사보에서 전문가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듯 멋지게 변신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어떨까궁금했어요. 제 몸매 핸디캡을 뛰어넘는 멋진 스타일, 너무 기대되요.

SBS **보스를 지켜라** 자성, 최강희처럼

男 ● 작은 패턴이 있는 그레이 재킷에 행커치프를 꽂아 멋지게 연출했다. 모노톤의 2단 티셔츠로 단조로움을 커버하고 기본 아이템인 청바지, 운동화를 함께 코디하여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女 ● 빨간색 벨룬 소매의 블라우스와 디테일이 있는 아이보리 치마를 매치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발랄한 느낌을 살렸다. 긴 머리보다는 올림머리를 연출하여 직장인으로서의 단정한 아름다움도 빼놓지 않았다.



Style 2

MBC **지못살아!** 윤상현, 최지우처럼

女 ● 그레이 자켓과 블랙 배기팬츠로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전문가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스팅글 티셔츠를 자켓 안에 매치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바지와 연결되는 블랙 칼라의 부티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 놓치지 않았다.



男 ● 극중 변호사로 나오는 윤상현처럼 지적 이미지를 연출했고, 금직한 패턴의 체크셔츠와 셔츠 칼라에 맞춘 레드 안경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베이지 면바지를 살짝 접어 귀여움을 더했다.



After ...

女 : 이민정 사원 재무본부 재무팀 재무파트

“처음엔 포즈 잡기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적응이 좀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촬영하는 동안 많이 웃고, 주목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시 한 번 촬영한다면 더 자신 있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하하”



Style 3

SBS **보스를 지켜라** 지성, 최강희처럼

男 ● 극중 천방지축으로 나오는 지성처럼 귀여운 남자로 변신한 황인성 대리. 보통 남자들이 흔히 입지 않는 보라색 팬츠, 카디건과 톤을 맞춘 도트무늬 스카프도 무리 없이 소화해냈다. 귀여운 남자로 거듭나고 싶다면 한번 시도해보자.



女 ● 꽃무늬 프린트 원피스에 허리라인을 잡아주는 벨트로 발랄한 최강희룩을 연출했다. 수줍음 많은 이민정 사원의 매력과 잘 어울리는 원피스를 입어서인지 표정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날씨에 따라 카디건이나 자켓을 걸쳐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

男 : 황인성 대리_MP본부 SCM팀 IA파트

“우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여서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스타일이 완성되었을 때, 재미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나도 꾸미면 연예인 못지않구나.’ 싶기도 하고, 하하 카메라 앞에서 귀여운 포즈도 맘껏 취해봤네요.”



89톤급 초대형 캐터필라 휠로더 992C CCR 계약 체결



(주)헤인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쌍용자원개발(주)과 캐터필라 휠로더 992C에 대한 캐터필라 인증 수리(Caterpillar Certified Rebuild, CCR)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수리 작업에 착수했다. 금번 계약은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쌍용자원개발(주) 신기사업소의 석회석 광산 현장에서 20여 년간 운용되어온 휠로더가 오랜 세월 동안 거친 작업 환경에 노출되면서 인체의 척추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프레임’이 균열되는 등 전반적인 장비 노후화로 인해 장비 가동이 불가해짐에 따라(주)헤인 천안공장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기술지원파트의 CCR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번 CCR수리물로 선정된 휠로더 992C장비는 10.4m³ 용량의 버킷을 장착한 89ton급의 대형급 장비로서 1991년 6월에 공급된 장비이며 무려 20년 4개월을 사용한 오랜 연식의 장비다. 헤인의 CCR 프로그램은 신제품 가격 대비 60%의 비용으로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성능과 외관으로 장비를 새롭게 리뉴얼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캐터필라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딜러사 정비공장에서만 그 작업이 가능하다. (주)헤인에서는 2008년 CCR 프로그램 런칭 이후, 캐터필라사의 최신 기술 및 표준화된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 마모 부품이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부품들은 모두 신제품으로 교체해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캐터필라사의 부품 재사용 기준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부품은 다시 사용해 수리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고 신제품과 동일한 하자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등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왔다. CCR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 기술지원파트 김덕현 부장은 “앞으로도 CCR 프로그램 수주를 활성화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뿐 아니라, 자원 재활용을 통한 철광자원과 화석연료의 절감에 일조하는 친환경 서비스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문의 : 고객지원센터 기술지원파트 041)621-1501

태국 현지에 ‘헤인에너지타이’ 법인 설립



(주)헤인 PS본부에서는 지난 7월 5.5MWp 규모의 태국 사라부리(Saraburi) 태양광발전소 기자재 설치공사를 착공하면서 태국 내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태국 현지법인으로 ‘헤인에너지타이’를 설립했다. 법인장을 맡고 있는 PS본부 에너지팀 백정현 팀장은 “사라부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0월 초부터 토목공사 마지막 공정이 진행 중이며 추후 구조물 및 전기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헤인에너지타이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좋은 일사조건, 정부정책지원 등으로 태양광발전 효율이 높아 동남아 태양광 시장 중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태국 내에서의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인도 BKT 타이어 본사 방문단 초청행사 개최



(주)헤인 MP본부에서는 BKT사의 OTR 타이어 품질 개선을 위한 현장 조사와 고객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BKT 타이어 세일즈 마케팅 및 기술 매니저(Mr. Anshuman Singh, Mr. Rajesh Gadkari, Mr. Roy Alex)를 초청해 현장방문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BKT 방문단은 입국 당일부터 총 4일간 강원도 인제 및 경기도 양주, 포천, 화성 등 전국 곳곳의 석산 및 골재/레미콘 현장을 방문해 BKT타이어가 장착된 건설장비의 현황 및 장비 가동 상태를 점검했다. 또한, 장비 운용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질의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팁을 제시하는 등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국 타이어 시장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주)헤인 전략마케팅팀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 한국 타이어 시장 상황에 따른 BKT타이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인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주)헤인에서는 지난 2009년 OTR(건설기계용) 타이어 전문 브랜드인 BKT사와 한국 총판 계약을 맺고 건설 및 농경용 장비 고객들에게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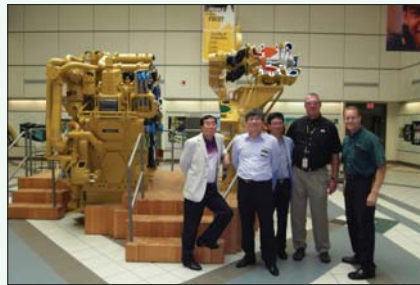
캐터필라 포장장비 고객초청행사(Paving Day 2011) 개최



(주)헤인 MP본부에서는 지난 8월 24일 천안공장에서 고객 초청행사인 ‘Paving Day 2011’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포장 시공자와 포장장비 운전자들에게 캐터필라 포장장비를 소개하고 유지관리법 및 다양한 소모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 100여 업체, 약 150여 명의 고객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아스팔트피니셔(AP655D), 소형피니셔(BB621E), 진동롤러(CS54), 콤팩테이션롤러(CC34), 진동탄뎀롤러(CB34), 스커더로더 및 중고 아스팔트 피니셔/파쇄기, 포장장비 소모품, 순정품 필터 등이 전시되어 캐터필라 포장장비의 라인업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초청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주)헤인에서는 1997년 이래로 ‘Paving Day’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포장장비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 문의 : 고객지원센터 1577-3872

한국해양대 교수진과 미국 캐터필라 엔진 공장 및 교육센터 견학



(주)헤인 PS본부에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한국해양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및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진들을 초청해 미국 캐터필라 엔진 공장 및 기술교육센터를 방문,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캐터필라사의 선진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캐터필라 엔진 공장(Large Engine Center)'을 비롯하여 '기술교육센터(Training Center)' 및 '주·단조 공장'에 방문한 교수진들은 현재 엔진 R&D센터에서 연구 개발 중인 각종 신형 엔진들의 시운전 모습을 견학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PS본부 박윤수 본부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견학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부 직원들에게는 엔진 영업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력 학습 기회를, 외부 고객들에게는 캐터필라 제품의 성능과 헤인의 서비스 기술력을 전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발전기 유지보수 계약(CSA Kit 프로그램) 리뉴얼 런칭



(주)헤인 PS본부 PCS팀에서는 국내 캐터필라 발전기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전기 유지보수 계약 시 기존 검사 비용만을 포함시켰던 것에서 부품 교체 비용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옵션별로 최대 42%까지 할인 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리뉴얼된 'CSA(Customer Support Agreements) Kit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캐터필라 발전기 보유 고객들의 체계적인 제품 정비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난 9월 15일 전국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런칭되었다. PCS팀 김기진 팀장은 "지속적인 제품 관리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문의 : PS본부 PCS팀 041)522-1592

전략마케팅팀 부품파트, 취급제한물질 관리 교육 실시



(주)헤인 전략마케팅팀 부품파트에서는 지난 9월 21일, 전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취급제한물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헤인에서 공급하고 있는 중장비 부품 중 하나인 '트랜스미션 오일'의 구성 물질 중 하나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저촉되는 취급제한물질로 분류되면서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서만 판매 및 보관이 허용됨에 따라 담당자들로 하여금 유독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각 사업장 오염 관리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되었다. (주)헤인에서는 이에 앞서 천안공장과 전국 서비스 지점 모두 환경청으로부터 판매 허가증을 취득해 법규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취급제한물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주)헤인은 이러한 직무 교육 뿐 아니라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진행되는 관리자 교육에도 전 지점 담당자들을 참석시켜 각 사업장의 오염관리현황 분석 및 문제점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캐터필라 발전기 세트 C175모델 시운전 성공



(주)헤인 PS본부에서는 지난 9월 26일 EPS팀과 PCS팀 주관 하에 C175모델 발전기 세트의 시운전을 천안공장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번 시운전은 미국 캐터필라사에서 향후 주력 모델로 판단하고 있는 C175모델을 이용한 첫 번째 시운전이라는 의미를 넘어 비로스 캐터필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발전기 Product Line 시운전을 헤인의 기술력만으로 완료했다는 데 있다. 이제 헤인은 발전기 분야에 있어서 고속발전기는 물론이고 중·대형 디젤발전기에 속하는 중속발전기까지 완벽한 설계 및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최고의 기술력을 구비한 캐터필라 딜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번 시운전에는 사업주인 ARABIAN CHLOR VINYL COMPANY(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이 방한해 참관하였으며 (주)대림산업의 설계 담당자 및 검사관이 참석하여 캐터필라사에서 공급한 C175 발전기 세트와 헤인에서 디자인하여 아웃소싱한 제어반, 연료탱크 및 로드뱅크를 직접 시연해보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 C175 사양 : 비상3000KW(상용2750KW)
60hz 480V 1800RPM

● 문의 : PS본부 EPS팀 02)3498-4585

'2011 F1 그랑프리 KOREA 및 JAPAN' 중계방송단에 캐터필라 발전기 세트 공급



(주)헤인 PS본부에서는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2011 F1 그랑프리 KOREA' 중계방송단에 총 8대의 캐터필라 렌탈용 발전기 세트를 공급했다. 헤인에서 공급한 캐터필라 C15 발전기 세트는 F1 중계 방송 및 위성송출 장비에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총 2400kW의 무정전 전력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주)헤인에서는 이번 대회 개최 일주일 전부터 시운전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사전에 장비 성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고, 병렬 운전 시스템을 통해 여러 대의 발전기가 상호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0년에 열린 'F1 그랑프리 KOREA' 대회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본 대회의 메인 전력 공급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간 일본 SUZUKA에서 열린 '2011 F1 그랑프리 JAPAN'의 중계방송단에도 총 2대의 C15 발전기 세트를 공급하여 560kW의 무정전 전력을 공급했다. (주)헤인 PS본부 박윤수 본부장은 "앞으로도 F1 그랑프리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 대회의 성공적인 중계에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창립 51주년 기념식 실시



(주)헤인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7일 양재동 본사 6시그마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장기근속사원 및 사업본부별 우수사원에 대한 시상, 원경희 회장의 창립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원경희 회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초우량 100년 기업 헤인을 만들어 가는 초석을 놓는 창립 51주년의 의미를 강조하며 임직원 모두가 고객성공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 반세기를 탄탄하게 받쳐준 그 힘으로 헤인의 새로운 50년을 향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ader's Letter

독자 의견



● 안녕하세요? 저는 중기 기사를 약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헤인의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달리 믿음이 가서 헤인 사보도 꼼꼼히 챙겨보는 편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노력하는 헤인의 고객 서비스 소식을 접해 뿌듯해집니다. 항상 한결같은 헤인, 수고하세요.

전남 여수시 미평동 / 이창규 님

● 오랜만에 글 올려봅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은 지 6년 째 들어섰네요.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사보 잘 보고 있답니다. 늘 기억해주시는 헤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틈 나는 대로 들려주시는 의정부지점 직원분들, 얼굴 본지 조~금 됐죠?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건 장비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작업 현장에서 힘차게 잘 돌아가고 있네요. 건설 경기가 좀 더 나아지면 또 다시 좋은 인연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인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주)평안산업 장기철 님

● 안녕하세요? 저는 '헤인' 사보 애독자입니다. 사보를 구독한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네요. 세월이 참 금방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항상 알찬 기사 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호 역시 독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남 여수시 웅천동 / 박현아 님

〈헤인〉은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보다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기분 좋은 이야기로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힘이 되는 한 마디는 물론이고 애정 어린 쓴소리까지도 보다 유익한 〈헤인〉을 만드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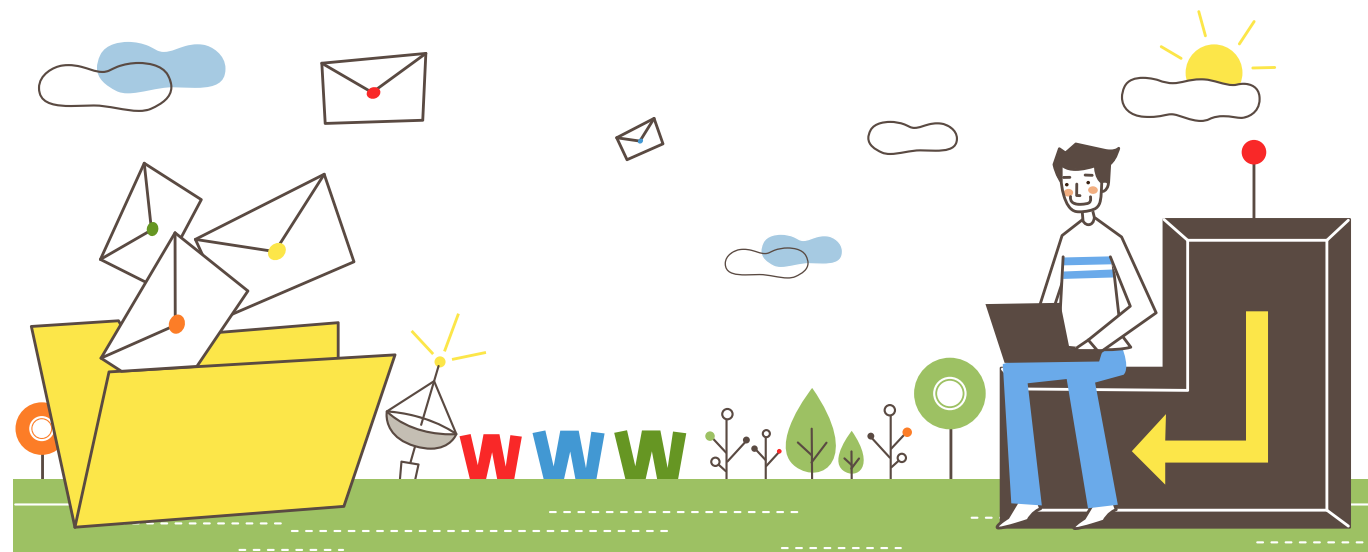
● 안녕하세요. 저는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남편을 응원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타사 장비로 일을 하다 지금은 캐터필라 장비로 바꿨는데 굉장한 자부심과 애착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사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앞으로 많이 실렸으면 좋겠네요. 애로사항이나 보완점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테구요. 장비 기사님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전북 군산시 나운동 / 공삼건설중기 김영순 님

● 무더운 날씨에 안녕들 하세요? 도우저를 사용한 지도 어언 25년이 지났네요. 캐터필라 D3G 모델로 바꾼 지 3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장비 성능이 매우 만족스러워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인 사보를 아내도 함께 보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담겨 있어 참 유익하다고 하네요. 다음 호가 기다려집니다.

경기 화성시 반송동 / 김영남 님

※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www.haein.com 고객센터 ☎ 1577-3872

본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2-6 / 02)3498-4500	전안공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55번지 제2공단 2-1블럭 / 041)559-1500
지점 영등포 02)2634-4800	의정부 031)826-0966~8
동해 033)522-5211	제천 043)643/4-3307
전주 063)245-1777~8	광주 062)945-5811~5
평택 031)667-2062~3	인천 032)761-0564
양산 055)380-4500	대구 053)521-8072~5
광양 061)793-1491~2	포항 054)262-7551
	진주 055)852-8811

당신의 생애 최고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by 김민경 MP본부 전략마케팅팀 사원



혹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했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임순례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 영화를 소개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오늘은 영화를 소개하기보다는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공유하고,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만의 최고의 순간'을 떠올려 보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순간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에게겐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는 일일겠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작은 사진전을 열었던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 말하려 합니다. 대학 시절, 저만의 독특한 취미를 가져보고자 평소 갖고 싶었던 DSLR 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진의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끔 사진 일기를 쓰면서 20대의 맛깔스러운 하루하루를 나열해 나갔고, 친구에게 편지 쓸 일이 생기면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편지지로 삼아 마음을 전했으며,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모습을 담았던 사진 중에 몇 장을 선별하여 작은 설명을 달고 책으로 만들어 선물하는 등 '사진'은 어느새 제 삶의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욕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뛰어난 사진기술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한 번쯤은 사진전을 열어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드디어 항상 생각하고 꿈꿔왔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처음에 기

획했던 규모의 사진전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작은 사진전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향해 셔터를 눌렀던 그 찰나에서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의 사진까지, 그리고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을 땐 질투심으로 그의 반쪽 얼굴만을 찍었던 재미난 사진 등 2년 넘게 함께하면서 간직해 왔던 사진 몇 장을 선별하여 한 사람만을 위한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이죠. 사진전을 처음 공개했던 그 순간 사진과 함께 했던 모든 해프닝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에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저의 온몸에서는 뜨거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것도 기뻐지만, 제가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해냈다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꿈 껴봅니다. 30대가 되기 전에 29년 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의 사진들을 모아 첫 전시회보다 조금 더 큰 규모에 색다른 의미를 담은 전시회를 열어 그 사진 속 주인공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작은 파티를 함께 즐기는 꿈을 말합니다. 지금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최고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고 온몸에서 '엔도르핀'이 돌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전화 |

e-mail |

주소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1. 7. 15 ~ 2013. 7. 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41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주)헤인 사보편집실

1 3 7 - 1 3 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전화 |

e-mail |

주소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1. 7. 15 ~ 2013. 7. 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411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주)헤인 사보편집실

1 3 7 - 1 3 0



사보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독자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힌트를 참고하여

사보를 다시 한 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사보를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1. 이것을 이용해 철을 만들면 철광석을 이용할 때 드는 에너지의 3분의 1만으로 충분하다. 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6배 적으며,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 (6~7p 참고)

- ①철스크랩 ②철스크립 ③철스트립 ④철스크럽



2. 이것은 소, 염소, 물소, 양 등의 동물의 젖에 들어 있는 단백질이 응고된 식료품이다. (10~13p 참고)

- ①버터 ②연유 ③치즈 ④분유



사보 **해인**은 독자 여러분과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호를 보시고 느낀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사보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힘이 될 것입니다.

※ 퀴즈 정답과 함께 독자 의견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 신규 구독 신청 ☐ 주소 변경

성명 | _____ 전화 | _____

주소(변경된 주소) | _____

●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1. ①원스톱 서비스 마케팅
2. ②자월도

구독 신청이나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엽서의 해당란에 체크(V)하시고 아래 사항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
(주소 변경 시 전 주소도 기입해 주십시오).
전화나 e-mail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Tel 02-3498-4634

e-mail jyyoon@haein.com